



평범한 중년남성이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코믹 히어로 영화 임력

3년만에 스크린 복귀한 류승룡

“첫 장면부터 웃겨드려요”

‘극한직업’ 촬영 등 바쁜 행보

“외국 히어로물은 흥수라고 할 만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평범한 사람이 등장하는 토종 히어로물이 나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죠.”

영화 ‘임력’에서 류승룡(사진)이 연기한 신석현은 아저씨 히어로다. 소시민인 데다 애초엔 정의감 따위 없었다. 저도 모르게 생긴 초능력을 깨달은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임력으로 돈이나 벌어볼까 궁리하던 그는 부상을 당하며 다짐한 삼아 하늘을 난다. 이제 움직임은 슈퍼맨에 버금가지만, 후줄근한 점퍼 차림의 중년인 건 그대로다.

2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류승룡은 ‘임력’이 중년 남자 신석현의 성장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처음엔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는 생계형 초능력인데 딸을 구하게 되면서 그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거죠. 약간 비겁하고 평범한 아버지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삶으로 옮겨가는 성장영화와 비슷해요.”

영화는 얼굴의 모든 근육은 물론 혀까지 동원해 임력을 발휘하는 류승룡의 슬랩스틱 코미디로 일단 관객을 웃기고 시작한다. 조이스틱을 이리저리 조작하며 게임에 몰입할 때 표정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왔



다. 코미디 연기의 상당 부분은 연상호 감독의 시연으로 출발했다.

“어떤 건 배우로서 걱정될 정도로 잘해요. 스태프들 반응이 좋아서 경쟁심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런 묘한 운용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은 것도 있었죠. 하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준 것 같아요.”

류승룡은 영화 속 신석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촬영하며 몸무게를 12kg 늘렸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리 안 한 몸”을 만들기 위

해서다. 지금은 다시 균형 잡힌 몸매로 돌아왔다. 류승룡은 “3월 초 촬영에 들어가는 차기작 ‘극한직업’이 체력소모가 큰 역할이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임력’은 제작년 봄 출연을 결정했다. 연상호 감독과는 애니메이션 ‘서울역’에서 목소리 연기를 하며 인연을 맺었다.

“‘서울역’도 그렇고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를 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잘 녹여내잖아요. 실사영화 쪽이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부산행’을 찍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 가기 전 만났는데 시놉시스만으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함께 하자고 했죠.”

‘임력’은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다. 류승룡은 그만큼 절치부심했다. 연극에서 영화로 주무대를 옮긴 이후 ‘최종병기 활’(2011),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7번방의 선물’(2013), ‘명량’(2014) 등을 잇따라 흥행시켰지만 ‘손남’(2015)과 ‘도리화가’(2015) 등 큰작에선 쓴맛을 봤다.

류승룡은 그사이 “모든 걸 다 던져서 배우로서 무언가 이뤄내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 생각으로 선택한 또 다른 영화 ‘7년의 밤’도 곧 선보인다. 촬영은 ‘임력’보다 먼저 했다. 두 작품은 배우로서 류승룡의 자세를 다잡는 영화이기도 하다.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왔어요. 쉬는 게 불안할 정도로요. 늦게 영화를 시작했고 아직도 배고프다는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지금은 만감이 교차해요. 작품들을 쉬 없이 할 때는 이런 걸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이번엔 기분 좋은 설렘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연합뉴스

‘트로트퀸’ 홍진영, 1년만에 컴백

소속사 ‘뮤직K’와 재계약

가수 홍진영(33·사진)이 소속사 뮤직K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맺으며 10년 의리를 보여줬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홍진영은 데뷔 초기였던 2008년부터 함께 한 뮤직K 권장현 대표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소속사와 재계약을 했다. 홍진영은 이전 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권 대표가 뮤직K를 설립하면서 이곳에 동지를 틀었고 지난해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됐었다.

2007년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팀이 바로 해체하자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선보이며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장영정의 뒤를 잇는 ‘트로트퀸’으로 주목받았다.

‘산다는 건’, ‘엄지척’, ‘사랑한다 안한다’ 등 발표곡마다 히트했으며 지난해 개그맨 김영철이 불러 화제를 모은 ‘따르릉’을 작사·작곡해 ‘2017 멜론뮤직어워즈’에서 트



로트 부문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걸그룹 ‘언니스’로 댄스곡 ‘맞지?’를 발표

해 큰 사랑을 받는 등 넘치는 ‘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누렸다.

홍진영은 2월 7일 작곡가 조영수·작사가 김이나 콤비가 작업한 신곡으로 1년 만에 컴백한다. 조영수와는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내 사랑’ 등의 곡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연합뉴스

강혜정 “워킹맘 연기 딱 맞았죠”

KBS 2TV ‘저글러스’ 중영

“가족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를 만나 참 편하게 연기했어요.”

최근 중영한 KBS 2TV ‘저글러스’에서 15년 차 주부 겸 비서 왕정애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배우 강혜정(36·사진)을 24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만났다.

강혜정은 “저도 정애처럼 워킹맘이라 딱 제 웃을 입은 느낌이였다”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딱 적합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애와 황보을 이사(이원근 분)의 이야기가 메인 커플만큼이나 사랑받는 데 대해 “원근 씨가 젊고 잘생겨서 제가 당당히 수혜를 봤다”며 “정애-을 커플은 숨길 것, 해결할 것이 많아 사건 위주로 전개되다 보니 시청자가 호기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관계이다 보니 적절한 수준의 결말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드라마가 월화극 1위로 퇴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날도 추운데, 우리 드라마가 웃으면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매력에 있어 좋아해

주신 것 같다”고 했다.

강혜정은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 출연해 주목받았고 이후 ‘연애의 목적’(2005), ‘웰컴 투 동막골’(2005), ‘허브’(2007) 등에서도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꽃 찾으러 왔단다’(2007), ‘미스 리플러’(2011), ‘결혼의 끝수’(2012) 등 여러 드라마와 연극에도 출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5 아침이 좋다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 30 좌중우물 만국유람기 |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
| 9 | 30 KBS 뉴스 |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0 흑기사 (재) | 50 로봇이 아니야 (재) |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
| 11 |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 55 내 남자의 비밀(재) | | 00 애니캐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
| 12 |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 | 00 12 MBC 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
| 1 |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 55 생생정보 스페셜 | 35 MBC스포츠 2018 전미 피겨선수권대회 | 55 닥터 365 |
| 2 | 20 안녕! 과별개별 시즌2 50 감성톤 고합습니다 스페셜 |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 | 00 뉴스브리핑 |
| 3 |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재) | 20 TV 유치원 50 KBS 재방송센터 | 10 똑? 똑! 키즈스쿨 40 에어로빅 | |
| 4 | 00 4시 뉴스집중 | 00 누가 누가 잘하나 |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 00 겨울방학특선 생명탐사, 지구로의 여정 55 지식 통조림 |
| 5 |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방송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태닝메카드 R 30 트레이닝 노트 세상을 건다 |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 00 SBS 오뉴스 45 KBC 자막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 3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날 | 00 집사부일체 |
| 7 |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 50 내 남자의 비밀 |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
| 8 | 25 미워도 사랑해 | 30 글로벌24 55 흑기사(재) | 55 세상기록 48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
| 9 | 00 KBS 뉴스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 8부작 | | | |
| 10 | 35 KBS 뉴스라인 | 00 흑기사 | 00 로봇이 아니야 | 00 리턴 |
| 11 | 05 ABU 다큐 교황회의 특집 CCTV 까리의 신년맞이 | 10 해피투게더 | 10 MBC 스페셜 |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
| 12 | 05 특별기획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 10 MBC 다큐프라임 | 30 나이트라인 |

| EBS1 | |
|---|--|
|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아이들의 왕국, 북한) |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아이들의 왕국, 북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배우 오정아만두) |
|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행복을 나누는 사랑방) |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행복을 나누는 사랑방) |
|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확이 아호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플랑 |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아비지와 웅기, 미안마)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
|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이어 삼국지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호(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울감한 소령자 레이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 특! 보너스나1~4 19:00 사이언스타 Q (리얼을 똑같이 만들어라) | 20:50 세계테마기행 (북선 출거용 이소라열 겨울기행 역사를 품은 땅 갈릴리) |
| | 21:30 한국기행 (극수기행2 밀양에서 만나면) 21:50 과학 다큐 버드온 (교통 혁명의 신화탄 하늘 나는 자동차)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호모 이코노미쿠스 (절약하는 체질로 바꾸다) |
| |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
| | 24:05 지식체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5일(음 12월 9일 丁巳)

| | | | |
|---|---|---|--|
| 子 | 48년생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적절한 해답을 얻는다. 60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72년생 가능성이 미약하므로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84년생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21 | 午 | 42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라. 54년생 방심과 인간적인 배려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자. 66년생 전체적으로 빠진없이 되짚어 봐야 할 때 되었다. 78년생 결부 시킬 필요까지 없었다. 90년생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4, 53 |
| 丑 | 49년생 뻔히 다 예견하면서도 일부러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61년생 각오한다면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73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85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87, 05 | 未 | 43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55년생 한 번 잃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67년생 변절한 국영이 너무 부지런히 행거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79년생 김사로 인해서 타락이 불렀다. 91년생 진로에 도움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5, 93 |
| 寅 | 50년생 그럴듯한 명분에 현혹된다면 곤란해진다. 62년생 준비가 복잡다단하다면 실행을 하는 시점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 하자. 74년생 책무를 다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86년생 진중하게 대하자. 행운의 숫자 : 02, 23 | 申 | 44년생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작기에 이르렀다. 56년생 아직은 시기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8년생 일관성 없는 언행으로 인해 공이 무너질까 두렵다. 80년생 적극적인 편다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된다. 행운의 숫자 : 78, 20 |
| 卯 | 51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63년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난처한 양태이다. 75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87년생 불만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62, 97 | 酉 | 45년생 형세에 지배 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57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다. 69년생 선악과 정사를 가리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81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일 중요해야 하는 단계로라. 행운의 숫자 : 56, 34 |
| 辰 | 52년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될 것이다. 64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76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니 의욕적으로 임해도 된다. 88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가 크겠다. 행운의 숫자 : 98, 10 | 戌 | 46년생 지금,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58년생 전체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할만한 커다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70년생 재구성하여 종합할 수 있는 여유와 기량이 절실하다. 82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43, 69 |
| 巳 | 53년생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되겠다. 65년생 김함이 생기는 곤란적인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니라. 77년생 소신성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89년생 동기야 절실해야 진정, 알차다. 행운의 숫자 : 60, 61 | 亥 | 47년생 평상시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쓴 맛을 보게 되리라. 59년생 짐작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겠다. 71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83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게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58, 49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